

전남 차 부품 고급브랜드화 본궤도 오른다

대불산단 프리미엄 자동차 연구센터 개소

4년간 786억원 투입 고부가 핵심부품 개발

전남도가 산업자원통상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 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이 프리미엄 자동차 연구센터 개소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남도는 5일 영암 대불산단 내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자동차부품연구원의 프리미엄 자동차 연구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낙연 국회의원, 허경 자동차부품연구원장, 고석규 목포대 총장, 이계호 F1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이 프리미엄 자동차 연구센터 개소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7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차 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모두 4년간 사업비 786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다.

국내 자동차부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솔라시도(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기업도시 삼포

지구 내 F1경주장을 활용, 프리미엄 차량용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개발된 부품들을 시험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프리미엄급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급 부품들을 국내기술로 생산할 수 있도록 타이어, 휠, 제동 등 3대 부문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핵심 부품 5종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센터 건설과 장비 구축, 평가기법 확보 등의 기반 구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F1경주장을 활용한 극한성능 평가가 이뤄져 현재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능시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프리미엄 자동차 부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산 자동차부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F1 경주장 인근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영암 F1경주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전후방 연관산업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택휴 전남도 투자정책국장은 "국제공인 1등급 F1경주장을 기반으로 해 차 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과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솔라시도 삼포지구 내 모터스포츠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전남은 고부가가치 자동차 부품산업을 이끌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배기운 국회의원과 임성훈 나주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포럼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나주혁신도시 유치 의지를 다졌다.

"탄소배출권거래소는 나주로"

국회서 여야 의원·시민 참석 포럼 개최

올 연말에 확정되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을 앞두고 국회에서 나주혁신도시로 유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나주시는 4일 전남도와 나주시, 공동유치위원회 및 범시민연대회는 국회의원회관 2층 제 2세미나실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위한 국회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임성훈 나주시장, 배기운·김성근·주영순·이낙연 등 여야 국회의원과 범시민연대회 회원 등 120여명이 참여해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나주혁신도시 유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행사는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

사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윤인택 한국배출권거래협회 사무국장이 '국내여건을 고려한 배출권거래제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홍두표 KPX 전략실장이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정제안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인사말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 측면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나주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광양 수어천 농경지 바닷물 피해 권익위 중재로 해결 실마리 찾아

공동 피해조사 실무협의회 구성...용역 진행

지난 3월부터 해수의 농경지 역류로 농작물에 염수피해를 입은 광양시 진상면 청암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광양시 진상면사무소에서 민원인들과 정기찬 상임위원,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윤인후 광양시 부시장, 신승운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합의 이끌어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 전남도지사, 광양시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어천 농경지 염수피해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남도 40%, 광양시 40%, 한국수자원공사 20%의 비용을 부담해 농작물 피해의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용역 결과에 따라 전남도, 광양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에 대한 염수침투 방지 대책,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

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청암마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민원인들은 인근에 있는 수어천의 방류량이 감소하고 전남도가 2012년에 수해 상습지를 개선하기 위해 수어천 바다의 흙을 깊게 파 올린 이후로 청암마을 농경지로 해수가 역류해 농작물의 피해를 겪고 있다.

그러나 염수 피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자 진상면 주민 206명이 염수피해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관련 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이번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정기찬 상임위원은 "관련 기관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피해원인 조사에 동참함으로써 장기화할 수도 있는 민·관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 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사진작가 김성환씨의 카메라에 담긴 여수 섬 사람들의 일상. 김씨는 '천상의 섬, 거기 사람이 있었네'라는 주제로 내년 1월까지 화순 소아르갤러리에서 사진전을 갖는다. /여수=김정화기자 chkim@kwangju.co.kr

환경산업 예비창업자·기업주 모십니다

전국 최초 환경산업 전문지원기관인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 강진환경산업단지내 창업보육공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환경산업 관련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신청 기업 중 심의를 통해 19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설립초기 활성화를 위해 3.3㎡당 월 7300원으로 도내 창업보육시설 중 최저로 책정했고 관리비도 3.3㎡당 월 5000원이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 강진산업단 입주기업 모집 임대료 저렴 점성성 탁월

안 입주하게 되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산업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진흥원이 수행하는 R&D, 경영지원 사업 등에 참여해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산업진흥원은 남해고속도로 강진IC에서 4km거리에 위치해 인근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환경산업단지가 내년에 조성되면 지원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연계사업이 가능한 점도 장점이

다. 정도영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장은 "입주기업 모집 등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으로 환경산업진흥원을 강진환경산업단과 연계하는 미래 지향적 고부가가치 첨단환경산업 육성전문기관으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eipi.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필수기자bungy@kwangju.co.kr

주요 관광숙박·체육시설 등 안전점검

전남개발공사, 겨울철 화재예방·동파방지

전남개발공사는 경도리조트, 한옥호텔 영산재·오동재, 해남 팔골호텔 및 남양 골프클럽 등 관광숙박시설과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4일까지 3일간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위험요소, 결

빙·동파 방지시설을 주로 확인했다. 특히 누수상태, 전기·가스·소방설비 작동 상태와 지하실의 시설물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점검을 통해 배수불량, 누수, 누전 등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 즉시 보완조치 했으며

현장조치가 어려운 부분은 연말까지 보수·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

다. 전승현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설, 한파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TV **조선**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남의 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